

# 전남도, 찾아가는 버스 삼총사 도민 건강찾아 힘찬 출발

장성서 ‘전남행복버스·건강버스·마음안심버스’ 첫 운행  
사회서비스 취약지역 보건·복지·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전남도는 사회서비스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건·복지·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6년 찾아가는 전남 버스삼총사’ 출발식을 5일 장성 하오마을회관에서 개최, 본격 서비스에 나섰다.

이번 출발식은 전남행복버스, 전남건강버스, 마음안심버스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출발하는 행사로, 사회서비스 취약지역에 어려운 농어촌·오지마을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통합 서비스 제공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혈압·혈당 검사, 치과·한방 치료 등 보건 서비스와 함께 키오스크 교육, 이·미용, 보행보조기 살균 세척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됐다. 또한, 우울·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

하고, 심리 상담과 정서 지원을 제공해 도민의 마음 건강까지 세심하게 살폈다.

현장에서 한방치료를 받은 한 80대 어르신은 “무릎과 허리가 늘 아파도 참고 지냈는데, 마을로 직접 와서 침도 놔주고 설명도 해주 정말 고맙다”며 “병원 가기 힘들었는데 집 근처에서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키오스크 교육에 참여한 또 다른 어르신은 “병원이나 은행에 갈 때 기계 앞에만 서면 겁부터 났는데, 알기 쉽게 자세히 알려줘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 같은 노인들도 뒤처지지 않게 챙겨줘 고맙다”고 말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각각 도민 곁을 찾아갔던 전남행복버스, 전남건강버스, 마음안심버스가 처음으로



전남도는 사회서비스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건·복지·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6년 찾아가는 전남 버스삼총사’ 출발식을 5일 장성 하오마을회관에서 개최, 본격 서비스에 나섰다.

한자리에 모여 함께하게 된 뜻깊은 날”이라며 “모든 마을에 행복과 건강이 전해질 때까지 섬 없이 달리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남행복버스는 주 4회 270개 마을을 방문해 7000여명의 도민에게 28종

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 서비스로 △집으로 찾아가는 기초 검사 (혈압측정 등 3종) △건강교육 △인생네트 등이 추가됐다.

전남건강버스는 2대가 운영 중이며, 각

차량이 주 3회씩 연간 220개 마을을 찾아가 4500여 명의 도민에게 의과·치과·한 의과 진료와 골밀도·콜레스테롤 검사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음안심버스는 주 1회 운영으로 연간

100여 개 지역을 방문해 2000여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과 심리지원, 맞춤형 상담 등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동신대 한의학과, 한의사 국시 전국 수석 배출

졸업예정자 전원 합격…재학생 100% 합격 성과

동신대학교 한의학과가 2026년도 제 81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며 재학생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5일 동신대 한의학과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시행된 제81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김수현씨 (26·사진)가 340점 만점에 311점을 획득해 전국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험에서는 졸업예정자 35명 전원이 합격해 동신대 한의학과 교육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동신대 한의학과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연속,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재학생 전원 합격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과 2024년에도 100% 합격률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수진 전원이 멘토로 참여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사제어울림 프로그램 등 다양한 비교과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국가시험을 대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신대 한의학과는 광주·나주·목포 등



3개 부속 한방병원과 서울 목동에 위치한 협력병원 동신한방병원을 활용해 임상 중심 교육을 실시하며,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한의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 한의과대학 교수진을 중심으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선도연구센터(MRC), 지역 미래 과학 기술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며 한의학과 과학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동신대 한의학과는 2015년 (5년), 2020년 (4년), 2024년 (4년) 연속으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한의학교육평가인증을 획득했으며, 2018년 모니터링 평가에서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국 수석 합격자인 김수현씨는 “기초부터 탄탄히 가르쳐주신 교수님들과 동기들의 응원 덕분에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며 “수석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6년간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뿌듯하다. 매 순간 환자를 진심으로 위하는 정직한 한의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현우 동신대 한의과대학장은 “광주·전남 지역 유일의 한의과대학으로서 의미 있는 교육 성과를 거두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마을까지 치료하는 따뜻한 한의사를 양성하고, 한의학의 과학화를 통해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전남도새마을회는 최근 목포신안버치호텔에서 임원 및 22개 시·군 회원단체장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전남도새마을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전남도새마을회, ‘2026 정기총회’ 개최

전남도새마을회는 최근 목포신안버치호텔에서 임원 및 22개 시·군 회원단체장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전남도새마을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주요사업 실적 보고와 올해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이뤄졌다.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

신 대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올해는 시·군 회원단체의 균형 있는 조직구성, 지도자 배가운동, 지역 특성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실천형 새마을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운동이 다시 한 번 지역 사회의 신뢰받는 실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금호타이어, 설 명절 어려운 이웃에 ‘온기’ 전달

광주·곡성 공장 인근 독거노인 등에 제수용품 전달

올해 25년째 1만1600여명에 지역사랑 활동 이어와

금호타이어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달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곡성공장 인근 독거노인 200여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인근 취약계층의 따뜻한 명절 보내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 광주 광산구 어룡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날은 곡성 입면사무소에서 진행됐다.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지역사랑활동 중 하나인 ‘명절 제수용품 전달’ 행사는

지난 2002년 추석부터 시작해 올해로 25년째 이어오고 있다.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독거노인들의 보다 더 따뜻한 명절을 위해 제수용품을 전달하면서 지역민들이 보내주는 여전한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담았다.

현재까지 1만1600여명의 이웃들에게 제수용품을 전달했다.

윤현석 금호타이어 관리팀장은 “작은 정성과 마음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 모두 즐겁고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선민 곡성공장장은 “금호타이어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지역민들의 감사한



금호타이어가 설 명절을 맞아 광주·곡성공장 인근 독거노인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다.

마음을 받아 지역과 함께하는 금호타이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명절 제수용품 전달과 더불어 연말에는 ‘이웃사랑 감자감치 나누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타이어 무상점검’ 등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면서 지역 한 토기업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조승환 동행 아카데미,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강

지원사업 신청 노하우 등 대상별 맞춤형 전략 제시

조승환 동행 아카데미는 최근 고급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특강 및 토크쇼를 개최했다.

특강은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활용과 대안’을 주제로 200여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서서열 조선대학교 겸임교수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정부 정책자금 접수 시기에 맞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와 신청 노하우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 신규 정책자금의 흐름을 분석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정책자금 성공 전략 등 대상별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다.



조승환 사무총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이지만 부족한 정보로 인해 꼭 필요한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물려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든든한 정책 가이드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전력거래소, 설 맞이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전통시장 등 상권이용·지역상품권 활용 독려도

전력거래소는 최근 설 명절을 맞아 나주 한전KDN 사거리에서 나누시가 주관한 ‘설맞이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상생 협력 의미 확산을 위해 추진된 이번 캠페인에는 윤병태 나누시장을 비롯한 나누시 관계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전력거래소는 광근열 기획부 이사장, 감사실장, 기획처장, 경영지원처장, ESG

홍보협력팀장 등 임직원 10여명이 동참했다. 현장에서는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이용과 지역 내 기업 생산품 구매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이 전개됐다.

이울러 감사실 주관 명절맞이 점령 캠페인을 병행해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안내와 농·수산물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나누시가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상생 협력 취지에 공감해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설 명절을 맞아 나주 한전KDN 사거리에서 나누시가 주관한 ‘설맞이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에 참여했다.

며 “캠페인의 취지를 살려 지역 내 자매결연 시설 농수산물 기부, 임직원 지역상품권 활용 독려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

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주전남언론인회, 첫 정기총회 (사) 광주전남언론인회는 지난 4일 5·18기념재단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정기총회를 열고 김성 회장을 제3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회의는 언론인회가 지난 1월 사단법인으로 전환 후 첫 정기총회였다.